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

# 광역 12곳 기초 145곳서 ‘국민의힘 승리’... 판 뒤집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여당인 국민의힘 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집계해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명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서울, 인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이겼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곳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접전지로 꼽힌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곳에서 이겼다.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대전·세종·충남·충북지사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우선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05% 득표율로 당선됐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39.23% 득표율로 낙선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49.06%)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48.91%)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인천시장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51.76% 득표율로 당선됐고, 경쟁자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44.55%)는 패배했다.

부산시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66.36%)가 변성완 민주당 후보(33.23%)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울산시장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59.78%)가 송철호 민주당 후보(40.21%)를 꺾고 승리했다. 경남지사도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65.7%)가 양문석 민주당 후보(29.43%)를 꺾고 이겼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78.75%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쟁자인 서재현 민주당 후보는 17.97% 득표율에 그쳤다. 경북지사도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77.95%)가 임미애 민주당 후보(22.04%)를 큰 차이로 이겼다.

대전시장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51.19%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쟁자인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48.8% 득표율로 이 후보에게 패배했다. 세종시장 선거도 최만호 국민의힘 후보가 52.83% 득표율로 이준희 민주당 후보(47.16%)를 제쳤다.

**대전·세종·충남·충북지사 등 캐스팅보터 꼽히던곳 국힘 승리**  
**민주당, 기초단체장 63명 확보**  
**진보당 1명, 무소속 17명 당선**  
**서울 구청장 국힘서 17곳 차지**  
**민주당 4년전 24곳→8곳으로**

충남지사 선거 역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53.87% 득표율로 양승조 민주당 후보(46.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북지사도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58.19%)가 노영민 민주당 후보(41.8%)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원지사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54.07% 득표율로 이광재 민주당 후보(45.92%)를 꺾고 당선됐다. 제주지사는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55.14% 득표율로 경쟁자인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39.48%)를 제치고 당선됐다.

광주시장은 강기정 민주당 후보(74.91%)가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15.9%)를 큰 차이로 이겨 당선됐다. 전남지사도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75.74% 득표율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

보(18.81%)를 크게 앞서 당선됐다. 전북지사 역시 김관영 민주당 후보(82.11%)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17.88%)를 큰 득표율차로 앞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지방선거 결과도 7회와 마찬가지로 ‘씩씩이’ 기초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른 전체 226곳 가운데 145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63명, 진보당의 경우 1명, 무소속 17명이 각각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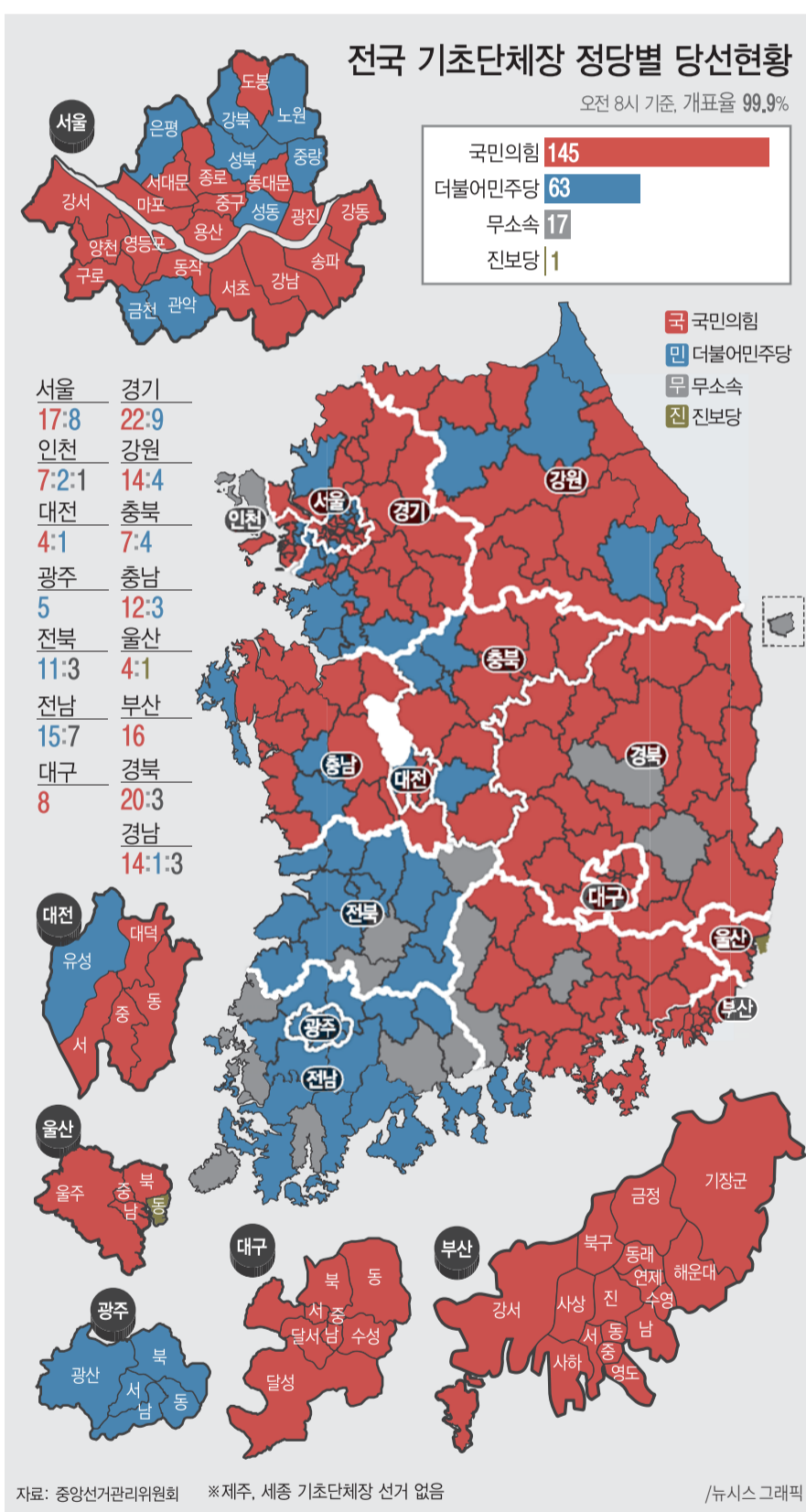
특히 민주당이 ‘24대 1’로 싹쓸이했던 4년 전 서울 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하면서 뒤집혔다. 민주당은 8곳에서 당선됐다. 경기도 내 31곳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4년 전 결과가 뒤집혔다. 민주당은 4년 전 29곳을 차지해 싹쓸이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승리했다.

전체 10명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인천도 4년 전 결과(민주당 9곳, 자유한국당 1곳)가 뒤집혔다.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7곳, 민주당 2곳, 무소속 1곳으로 마무리됐다.

17개 시도에서 전체 779명을 선출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491곳, 민주당은 280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4년 전 102석을 차지해 승리한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6석 차지로 과반 의석을 넘겼다.

다만 전체 2601명을 선출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1218명, 국민의힘 1216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7명, 무소속 114명이 각각 당선돼 팽팽히 맞섰다.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전체 386명 가운데 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219명, 정의당 1명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원자재값 상승, 중기적으로 인플레이 하락”

>> 1면 ‘이창용 한은총재’서 계속

디지털 혁신이나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각국 중앙은행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

해서도 정책수단의 개발과 이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강조했다.

선진국을 대표해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은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2007~2020년 중 국내총생산

(GDP) 대비 3.8%에서 31.0%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신흥국의 경우 4.0%에서 6.2%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증가에 그쳤다.

이 총재는 자국의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신흥국과의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1970년대보다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나, 유가 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조사국장은 “원유 공급충격으로 인한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insignificant)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

정적 효과에 기인한다”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입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나,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중기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올해 내내 목표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는 목표치보다 약간 높거나(선진국) 목표치 범위 내로 하락(신흥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백지연 기자 widus0248@